

영암군, 서울 조계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대성황

잡곡류·황토고구마 등 80여개 품목 선보여



영암군은 음력 2월 초하루 신중기도 입제 법회를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경내에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조계사 영암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는 진동평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조정기 군의회의장, 노영미 군의원, 박태선 NH농협은행부행장, 오정현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

장, 박도상 영암농협장, 그리고 설혜영 사모님을 비롯한 군단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재경 영암군향우회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사에서 처음 열린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영암에서 바로 올라온 달마지쌀 품도, 서리태, 찰흙미 등의 잡곡류와 황토고구마, 딸기, 방울토마토, 대파 등의 다양한 농산물과 무화과 잼, 대봉감

말랭이, 흰 민들레 즙 등 약 80여개 품목이 선보였으며,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날 조계사 직거래장터는 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고, 서리태, 황토고구마, 찰흙미, 딸기 등 일부 농산물은 준비한 수량이 가장 첫날에 품절되어 밤새 산지에서 급히 추가로 수송하는 등 영암 농산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약 3천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신중기도는 매일 음력 초하루부터 초하룻날까지 열리는 데 약 2,000여명의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며, 이곳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연 14회 정도 열리며, 영암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진동평 영암군수는 조계사 직거래장터를 이틀간 방문해 영암군을 알리면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 및 판매했고, 조계사측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준비 '본격 시동'

7.26.~8.1.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서 진행



장흥군이 오는 7월 28일 막을 올리는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4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제, 7년 연속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한 장흥군 대표 여름축제다. 군은 지난 1월, 공무원과 SNS를 대상으로 한 물축제 포스터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포스터를 확정 짓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에 나섰다.

2월 말에는 수도권 소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행사와 간담회를 갖고 물축제 전용 축제상품 구성협의도 마쳤다. 최근에는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여성위원 40%를 포함한 물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본계획은 '참여와 화합의 축제', '흥과 휴의 축제', '차별화된 장흥만의 물축제', '최신 트렌드를 담아내는 축제'라는 기본목표를 담았다. 프로그램은 장흥이 보유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물=장흥'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탐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월 완공을 목표로 퇴적도 준설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송수빈 기자

군은 앞으로 탐진강 바닥분수 설치, 장흥교 교각 야간 조명설치, 계명아트 물축제 벽화 신규도색,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와 지상최대의 불싸움, 황금 불고기를 잡아라, 야간 프로그램인 장흥 워터樂園파티와 별밤수다(水多)쟁이를 확대 운영한다. 야간경관조명 조성으로 불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은 물축제와 같은 시기에 열렸던 인근 지자체의 축제가 5월과 10월로 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물축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올해 장흥군이 목표한 유동인구 300만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흥=송수빈 기자

여수시, 민·관 합동 MICE 유치 상담 교류회 '성료'

12개 업체 1:1 비즈니스 맞춤형 상담 진행...30여 건 유치



여수시는 '2019년 여수시 민·관 합동 MICE 유치 상담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행사 30여 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서울·경기지역 MICE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류회에 참여한 지역 업체는 12개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디오선리조트, 경도골프리조트, 유캐슬호텔, 히든베이호텔, 호텔엠블여수, 베네치아호텔, 더호텔수 오션힐호텔, 여수에스랜드, 여수마이스협회, 유담호텔이다. 여수시와 지역 업체는 참석자에 게 여수만의 강점인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MICE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는 1:1비즈니스 상담 서비스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 교류회 개최를 통해 MICE 업계 정보 교환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이를 계기로 여수시의 MICE 인프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에는 MICE 행사 132건을 유치해 31만 명이 여수를 다녀갔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군, 내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설명회 개최

화순군이 오는 15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설명회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98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계약체결 방법,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 등 사업 추진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로 농가의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지난 2월 선정된 시공 업체(7개사)도 참여한다. 시공 업체는 자사의 제품, 시공 능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공 업체 설명회를 통해 농가들은 제품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군은 올해 저온저장고 98개 동(98농가) 중 70개 동은 군 자체 예산(100% 군비)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28개 동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과수, 채소 등 2ha 미만의 소규모 원예 농산물 재배 농가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농업의 미래전문가 양성 '제12기 농업인대학' 개강



담양군이 지난 12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담양군농업인대학'의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은 농업인대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으며 농업인대학 운영상황과 최형식 담양군수의 변화와 도약의 시대 4차 산업 혁명과 담양농업의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의 특강,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날 개강식에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양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같이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시간을 내 교육에 참여해 주시는 만큼 우리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농업전문경영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대학 교육은 스마트팜과 포도(사인머스켓)과정으로 구성, 11월까지 약 100시간에 걸쳐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농업인대학 과정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주민건강증진 건강프로그램 운영

강진군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개 읍·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운동교실 및 건강걷기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운동교실 및 늘리리 만보 건강걷기는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신체활동 실천기회를 확대

하고 건강지식 향상,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보건소는 비만도, 혈압·혈당 사전·사후 측정 및 설문지를 통하여 어르신들 건강상태에 맞춰 영양교육, 금연·절주교육, 비만교육 등을 실시한다. 어르신 운동교실은 운동 강도와 함께 웃음치료, 생활체조, 스트레칭

등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활기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며, 건강걷기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지도자 지도하에 노르딕 스틱을 활용하여 걷기를 실천하는 주민 주도적 프로그램이다. 어르신 운동교실과 건강걷기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건강수준 향상을 기대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취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